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149 (우: 07671) •전화 : 02-4977-888 •전송 : 02-4970-444
•날짜 : 2021년 11월 30일(화) •담당: 신현정 보육사업단조직국장(010-6546-4878) •이메일 : kptuorg@gmail.com

- 어린이집 AI CCTV 도입사업 즉시 중단 및 전면 폐기 촉구 기자회견 -
**민간업체 기술개발에
아이들과 보육교사 인권 넘기는 안산시 규탄한다!**

- 일시: 12월 1일(수) 오전 10시
- 장소: 안산시청
- 주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진보네트워к센터

※ 기자회견 진행 순서

사회자: 박인화(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부장)

| 순서 | 내용 | 발언자 | |
|----|----------------------------|---------|----------------|
| 1 | 여는 발언 | 김태인 |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 2 | AI CCTV 도입 문제 : 인권침해(기술중심) | 김민 | 진보네트워к센터 |
| 3 | AI CCTV 도입 문제 : 인권침해(법률중심) | 조이현주 | 법률원 |
| 4 | 현장 사례 | 함미영 | 보육지부 지부장 |
| 5 | 연대단위 발언 | 황순식 |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
| 6 | 기자회견문 낭독 | 함미영, 김민 | 보육지부, 진보네트워к센터 |
| 7 | 안산시 항의 면담 | | 보육지부, 진보네트워к센터 |

기자회견문

지난 10월13일 안산시는 안심보육시스템 강화를 위해 CCTV에 인공지능(AI)를 접목하는 ‘안심어린이집 시스템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산시는 시스템 구축 업체 소이넷, 시범실시기관인 시립센트럴포레어린이집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안산시는 해당 협약이 “AI기술이 접목된 CCTV가 아동의 부정적 감정 표현 및 아동학대 징후 등을 포착해 사고를 사전에 발견·예방하는 아동안전 보호정책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 말했지만, 이는 기술과 인권보호 어느 측면에도 맞지 않는 주작부언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이하 우리단체) 보육교사들을 대표하여 안산시의 「인공지능 접목 CCTV 안심어린이집 시스템 구축」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아동과 보육교사의 인권까지 민간업체 기술개발에 넘기는 안산시의 행정 추진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보육교사와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와 현행법 위반의 문제

해당 사업은 생체정보가 포함되는 CCTV 영상을 사회적 합의나 당사자와의 논의 없이 민간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이유로 무단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나 인공지능 기술이 인권에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아동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해야 하지만 정보주체인 아동과 보육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설치, 운영, 영상정보 처리와 열람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업무제휴를 맺은 민간 업체에게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6개월 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며 나아가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표정만보고 범죄예방? 아동보육은 영화가 아닌 현실

아동보육은 영화가 아닌 현실입니다. 부정확한 얼굴표정과 단편적인 화면만으로 예측하여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해당 사업의 목표인 '아동의 부정적 감정표현·학대행위 감지'의 기반이 되는 '감정인식' 기술은 대표적인 비과학적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인공지능 연구자와 심리학자들이 감정인식 기술은 신뢰할 수 없는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정확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비판합니다. 이러한 기술로는 그 누구도 지킬 수 없으며 프라이버시의 침해만을 야기할 것입니다

셋째, 거짓과 꼼수로 추진되는 전시행정

안산시의 비정상적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해당 기술도입 이유로 지속적인 관내 아동학대 발생 증가를 들었으나 안산시가 발표한 아동학대 발생의 지속적 증가는 거짓입니다. 안산시는 지난 기간 관내에 아동학대 발생이 지속 증가하여 기술도입을 통해 이를 낮추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안산시의 2020년 아동학대 발생 건은 19년의 절반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안산시는 2020년 자료를 발생이 아닌 신고 건으로 자료를 왜곡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이 안산시 의회에서 조차 보육교사와 아동인권 침해 우려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2019년 서울시의 유사 사업이 반대로 무산된 사례에 비추어 기존 어린이집의 불참 및 보육교사의 사업 반대가 예상되자 신규 개소 어린이집의 위탁 선정기준으로 넣어 모집하는 꼼수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CCTV 설치현황은 보육사업포털에 공시되어야 하는 필수정보임에도 이번협약의 시범대상 어린이집은 10월1일 개소 후 현재까지 CCTV 정보가 미설치로 표기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안산시장은 다음 달 정부로부터 꼼수로 추진되는 해당 사업을 사유로 보육사업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진짜 안심보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을 잠정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낙인찍어 내모는 사업으로 상을 받는 것이 오늘날 보육현장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꼼수로 추진되는 안산시의 어린이집 인공지능 CCTV 도입 사업 추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기만적인 어린이집 인공지능 CCTV 도입사업 즉각 중단하라!

하나. 보육교사와 아동인권 민간업체 기술개발에 팔아넘기는 인공지능 CCTV 사업 전면 폐기하라!

하나. 표정만 보고 범죄판별? 검증 안 된 비과학적 기술의 어린이집 도입 중단하라!

하나. 보육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추진 시 당사자인 보육교사 및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라!

2021. 12. 1.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 진보네트워킹센터

발언문

김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안산시 인공지능 기반 안심 어린이집 사업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먼저 부정적 감정 및 행위 또는 아동학대의 징후를 CCTV 영상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감지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사업 책임자가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만능이 아닙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인공지능 기반 감정인식 기술은 그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가 절대적으로 떨어지며 나아가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유사과학에 근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한계가 확실하고 위험한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얼굴 표정과 감정이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닌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또는 사회적 배경과 맥락 및 장소와 같은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신체로 표현되는 방식은 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의 주장이 아니라 수많은 심리학자와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 심리과학협회는 2년간의 연구를 통해 감정인식 인공지능의 정확도가 30%에 불과했음과 동시에 애초에 얼굴 표정 변화와 감정에 대한 이론 자체가 과학적 타당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뉴욕대의 AI Now와 같은 인공지능 연구기관이나, 미국과학진흥협회의 과학자들 또한 비슷하게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며 감정인식 인공지능 기술을 ‘21세기 골상학’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얼굴인식, 감정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판매하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감정인식 기술 자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더불어 사람의 감정 상태가 얼굴 표정에 반드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미국이나 한국의 AI면접 서비스 제공업체들 또한 영상 인터뷰를 통해 지원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던 기능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로 무슨 아동학대를 감지한다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해당 사업의 위험 요소는 불완전하고 위험한 기술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한다는 명목으로 어린이집의 아동과 보육교사가 낯낯히 촬영된 CCTV영상을 민간 업체에게 무작정 제공한다는 게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CCTV영상이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업체의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라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사적인 이익을 넘어서 아예 유출되거나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식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수집하는 수많은 개인정보를, 개발 명목으로 인공지능 업체에게 무단제공하는 사업들이 안산시 외에도 몇 건 있었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되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조사중인,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를 위해 수집한 수억건의 얼굴 사진을 무단 제공한 사례가 있구요. 무엇보다 얼마 전 대구시에서는 CCTV영상을 업체에 인공지능 기술 개발용으로

로 제공했더니, 업체가 10만건의 영상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했다가 적발되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안산시는 아동과 보육교사의 얼굴과 일상이 담긴 CCTV영상이 이런 식으로 사적 이익에 쓰이거나, 유출되고 오남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기술의 한계와 위험성을 무시하며 안심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으로 감시용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사업은, 어떠한 아동학대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아동에 대한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안산시가 아동학대를 자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안산 AI 시시티브이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는 CCTV가 아주 많이 설치되어 있고 교사들은 초미세 단위로 감시를 당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에서는 이걸로도 부족한지 AI 시시티브이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강력 성범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집 주변에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하여 강력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교사들을 강력 성범죄자와 똑같은 취급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닙니다.

CCTV는 아동보호 목적으로 설치가 됐지만 실제로는 교사들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더 사랑해주고 싶어도 목적 외로 사용되는 CCTV의 감시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망설여집니다.

교사에게 애정표현을 하며 다가오는 아이를 안아주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아이를 너무 세게 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학대처럼 보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낮잠시간 아이를 토닥이는 내 손길이 ‘아이를 때리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학대처럼 보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과 역할놀이를 하며 괴물 역할을 하다가도 ‘내가 아이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학대처럼 보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동학대로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오해와 의심 때문에 교사들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더 보듬는다거나 친밀한 표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심한 곳은 CCTV를 악용하여 교사의 이런 동작들을 아동학대라며 몰아세우고 괴롭힘의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CCTV가 설치되면 보육교사들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육을 할 수 없습니다. 더 위축되고 주눅이 들게 될 것입니다. 안산의 AI CCTV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연대 발언문

황순식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 황순식입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7살배기 둘째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였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까불어 말 안 듣는 아이를 웃으며 받아주는 선생님을 보며 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밝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를 기쁘게 맡길 수 있고, 선생님도 애정을 가지고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감시하며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CCTV 도입은 그 신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명확히 반대합니다.

AI CCTV를 도입하는 것은 사람보다 기계를 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예 선생님을 로봇으로 대체하지 그러십니까? 그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믿지 못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최소한으로 해야만 합니다.

저는 10여년 전 과천시의회 시절부터 CCTV 설치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물론 강하게 반발하는 주민도 있었지만 전 이것이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학부모와 선생님이, 고용주와 노동자가, 공무원과 시민이,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고 감시하며 싸우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 부족해도 서로 공존하기 위해 대화하며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후자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진보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더 평등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당입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노동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여러분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1] 안산시 안심보육 어린이집 추진 계획

| | | | | | | | |
|------|---------------|-----|--------|--------|------|-----|--------------|
| 등록번호 | 여성보육과-26234 | 주무관 | 보육정책팀장 | 여성보육과장 | 복지국장 | 부시장 | 시장 |
| 등록일자 | 2021. 07. 22. | | | | | | 2021. 7. 22. |
| 결재일자 | 2021. 07. 22. | 구미경 | 김윤희 | 김숙주 | 박경혜 | 이진찬 | 윤화섭 |
| 공개구분 | 비공개(5) | 협 조 | | | | | |

[의견]

「마음놓고 자라는 보육요람」 안심 보육 어린이집 추진 계획

개 요

- 인공지능(AI)기반의 안심어린이집
 - 2021. 11월 시스템개발 : 신규개원시립 어린이집 1개소
 - 2022. 6월 시범사업 운영 : 시립어린이집 2개소 추가
- 가상현실(VR)등을 활용한 교육컨텐츠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공정채용
 - 표준 가이드라인 제시
 - 면접관 인력풀 운영

 **복 지 국**
여성보육과

『마음놓고 자라는 보육요람』 안심 보육 어린이집 추진 계획

- 인공지능(AI)기반을 통해 아동학대 정황 조기발견·예방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채용의 공정성 확보로 보호자에게 신뢰 받는 안심 보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등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미래 지향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I 추진배경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와 아동학대 신고 의무 강화 등 관련 법령 제정 및 다양한 정책 도입에도 지속적인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증대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교육현장에 접목한 미래 지향적 보육 방향 전환 필요
-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친인척·연고에 의한 채용 배제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채용 방법 개선 필요

II 안심보육 추진 내용

1. 인공지능(AI) 기반의 안심어린이집

1. 아동학대 현황

- 아동학대 신고·판단 현황

(단위 : 건)

| 연도 | 아동학대 신고 | 아동학대 판단 | 전년대비 증감률 | |
|------|---------|---------|----------|-------|
| | | | 신고 | 판단 |
| 2018 | 1,303 | 1,042 | 2% ↑ | 7% ↑ |
| 2019 | 1,956 | 1,686 | 50% ↑ | 62% ↑ |
| 2020 | 1,691 | 1,489 | 14% ↓ | 1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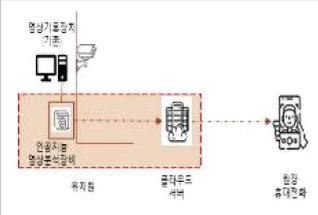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결정 현황

(단위 : 건)

| 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14 | 2 | 8 | 4 |

2. 안심어린이집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 기본 방향



- 기존 설치된 어린이집 내 CCTV활용
- 인식 방법
 - ① 인공지능 기반의 행동 감지
 - ② 안면표정/감정분석
 - ③ 안면인식을 통한 원내 학대 의심 행위 감지
- 클라우드 환경과 구축형 서버를 통해 인공지능 처리

○ 안심어린이집 시스템 구축 시 고려 사항

- 어린이집 내의 CCTV의 설치 각도와 품질에 가능여부 검토
→ 어린이집별로 CCTV 카메라 영상의 스펙정보 및 샘플영상 확인
- 어린이집의 CCTV설치 업체와의 지원 및 협업 필요
- 가혹행위의 종류 및 형태에 대한 추가 학습 필요
- 인공지능(AI)의 행동에 대한 오인 혹은 오식별에 대한 대응으로 수집된 정보가 고도화되기까지 영상 관리자가 육안 판단하는 과정 필요

3. 안심어린이집 시범사업 운영

- MOU체결 : (주)소이넷(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 사업기간 : 2021. 8. ~ 2023. 5
- 시범사업 추진 어린이집 : 3개소
 - 시스템 개발(2021. 11월)
 - 신규 개원 「시립센트럴포레어린이집」 데이터 개발 착수
 - 시범운영(2022. 6월)
 - 데이터 수집 상황을 고려하여 센트럴포레 포함 3개소 운영
 - 확대운영(2023. 6월)
 -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확대 방안 논의
→ 오인식 등 오류사항, 운영의 문제점 등 전체적인 검토

4. 시범사업 추진 절차

| MOU체결 | 예산확보 | 계약 | 업무협약 | 시스템개발 | 시범운영 |
|---------------|-------------|--------------------------|--------------------------|---------------------|----------------------|
| (주)소이넷 안산시 | 추경 예산 확보 | (주)소이넷 안산시 →착수금 지급 | cctv업체 어린이집원장 업무협약 | 시스템개발 시험운영기간 | 설치및 운영관리 →잔금지급 |
| 8월 중 | 9.10 | 9월 중 | 10월 중 | 21.11~22.5 (6개월) | 22.6.~23.5 (1년) |
| 시 사업주 | 시 | 시 | 사업주 관련업체 | 사업주 | 사업주 |

※ 시스템 개발 기간 (6개월 소요) / 시범 운영 기간 (1년 소요)

5. 소요 예산 : 41,000천원

(단위 : 천원)

| 년도 | 산출근거 | 금액 | 비고 |
|------|--|--------|---------|
| 2021 | (개발착수) 19,000×1개소×50% = 9,500 | 9,500 | 2회추경 |
| 2022 | (개발잔금) 19,000×1개소×50% = 9,500 (시범운영2개소) : 11,000×2개소 = 22,000 | 31,500 | 22년 본예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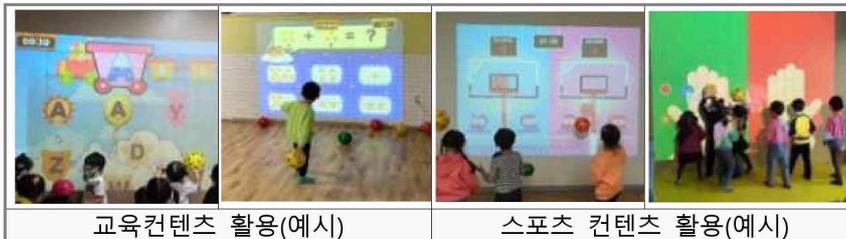
- 계약체결 : 개발착수금 50%지급 / 시범운영 개시 전 잔금 50% 지급
- 유지보수기간 : 계약 후 1년간 무상유지보수 실시
- 2023년 확대운영 : 기존 솔루션 및 운용지원 비용 개소당 7,500천원 예상(확대 개소수에 따라 변동 가능)

2.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교육콘텐츠 제공

1.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활용

- 미래형(AR)로 프로젝터를 통해 벽면에 투사되는 화면 인터페이스에서 활용하여 손으로 벽면을 터치하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활용
- 스포츠를 비롯하여 학습(언어, 수학, 영어 등) 콘텐츠를 이용하여 교육과 놀이를 접목하여 활용 가능

2. 콘텐츠에 대한 활용



교육콘텐츠 활용(예시)

스포츠 콘텐츠 활용(예시)

3.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 시범 운영

- 시범운영 어린이집 : 1개소(2021. 11월 신규 개원 어린이집에 적용)
- 장비 및 콘텐츠 구입비용 : 15,000~30,000천원

| 구분 | 스포츠콘텐츠 | 스포츠 및 학습콘텐츠 | 토탈 콘텐츠 |
|-------|----------|-------------|----------|
| 구입예상가 | 15,000천원 | 18,000천원 | 30,000천원 |

- ※ 난이도 설정 및 콘텐츠 종류에 따라 비용의 차이 발생
- 사업예산(2회 추경)
 - 신규개원 예정인 시립센트럴포레어린이집 기자재비에서 활용
 - 기자재비 100,000천원(국도비 10,000천원+시비추가 90,000천원)

3.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공정 채용

1. 2021년 상반기 국공립어린이집 채용 현황

- 보육교직원 채용 현황

(단위 : 명)

| 합계 | | 1월 | | 2월 | | 3월 | | 4월 | | 5월 | | 6월 | |
|-----|-----|----|----|----|-----|----|----|----|----|----|----|----|----|
| 임용 | 면직 | 임용 | 면직 | 임용 | 면직 | 임용 | 면직 | 임용 | 면직 | 임용 | 면직 | 임용 | 면직 |
| 147 | 214 | 9 | 11 | 6 | 137 | 86 | 15 | 18 | 20 | 6 | 18 | 22 | 13 |

- 신규 채용 보육교직원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합계 | 담임교사 | 보조교사 | 연장교사 | 영양사 | 간호조무사 | 조리원 | 차량기사 |
|-----|------|------|------|-----|-------|-----|------|
| 147 | 72 | 34 | 17 | 2 | 2 | 19 | 1 |

- 보육교직원 출신 학교별 현황

(단위: 명, %)

| 대학졸업(79.6%) | | | | | | | | 대학미졸학 (20.4%) |
|--------------|--------------|------------|------------|------------|-------------|------------|--------------|------------------|
| 계 | 안산대 | 연성대 | 신안산대 | 남서울대 | 한국방송 통신대 | 동남 보건대 | 기타 | |
| 117 (100) | 32 (27.4) | 6 (5.2) | 5 (4.2) | 5 (4.2) | 5 (4.2) | 4 (3.4) | 60 (51.4) | 30 |

※ 기타 : 1명~3명이 포함된 대학(45개 대학 60명)

2. 공정채용 추진계획

- 근거 : 2021년도 보육사업 안내 보육교직원 관리(지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고사 등을 통하여 보육교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다.
- 추진방향
 - 현재 : 시립어린이집 자율적 채용
 - 개선 : **표준안 마련 및 면접관 인력풀 활용 등 객관적 채용절차 마련 시행**
- 추진방법
 - ① 근로계약서 표준 가이드라인 제시
 - 어린이집별 근로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의견 수렴 후 가이드라인 제시
 - 공고문에 채용절차를 예측할 수 있는 요소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결정의 근거가 되는 전형 기준을 포함
(구체적인 채용일정 및 절차)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시험전형단계 (심사항목) 필수항목+가산점
(결정 근거가 되는 전형) 동점자간 순위, 최종차수 차점자 합격절차, 가점 등 (채용심사) 서류·면접 등 심사, 채용신체검사 및 범죄경력조회

② 국공립어린이집 면접관 인력풀 운영

- 면접관 인력풀 운영 구성

| 계 | 원장대표 | 교사대표 | 학부모, 관계공무원, 보육전문가 |
|----|------|------|-------------------|
| 50 | 20 | 15 | 15 |

- 면접관 인력풀 활동기간 : 2년(공백발생시 추가 확보)
- 채용 면접
 - 면접관(4명) : 관련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외부면접관 3명 심사
- 면접수당 지급 : 5만원(2시간 이내)

- 2021년 시립어린이집 예산편성지침에 반영
- ※ 세부추진 시 시립어린이집 원장의견 수렴 및 단계적 적용

3. 신규채용 절차

| 채용계획 제출 | 면접관 배정 | 면접실시 | 임면보고 | 적격성확인 |
|--------------------------|--------------|------|--------------|---------------------|
| 채용 계획서 제출 -채용인원/조건/방법 | 면접관풀인원 배정 | 면접 | 임면서류 등 보고 | 적격성 및 결격사유 확인 |
| 3일 이내 | 3일 이내 | 당일 | 14일 이내 | |
| 어린이집 | 시 | 어린이집 | 어린이집 | 시 |

Ⅲ 기대효과

- 인공지능(AI)을 통해 아동학대 행위 감지를 통해 사전에 학대 행위를 예방하여 학부모의 불신과 불안감 해소
-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보육 환경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의 공정한 채용을 통한 능력 있는 교사의 채용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 조성. 끝.

[첨부2] 안산시 인공지능(AI)기반 안심 보육 어린이집 추진 협조 요청 공문

서로 배려하고 조금 더 참는 당신이 안산의 영웅입니다.



안 산 시



수신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장
(경유)

제목 인공지능(AI)기반 안심 보육 어린이집 추진 협조 요청

1. 귀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CCTV를 설치·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년도별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현황

| 계 | 2018(결정건) | 2019년(결정건) | 2020년(신고건) | 2021년상반기(신고건) |
|----|-----------|------------|------------|---------------|
| 29 | 2 | 8 | 9 | 10 |

3. 우리시가 인공지능(AI)기반의 안심보육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아동의 경우 표면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후 사후 조치를 하고 있어 이에 아동학대의 조기 정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아동학대 발생 및 아동의 후유증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4. 이에 아동의 안전을 위한 안심보육어린이집 시범사업에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및 보육교직원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 추진일정

(데이터 개발) 2021. 11 ~ 2022. 5(7개월)

(시범사업 실시) 2022. 6. ~ 2023. 5(1년간). 끝.

안 산 시 장

주무관

보육정책팀장

여성보육과장 전결 2021. 8. 18.

협조자

시행 여성보육과-29444

접수

우 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안산시청) (고잔동) / <http://www.ansan.go.kr/>

전화번호 031-481-2265 팩스번호 031-481-3259 / gletter@korea.kr / 대국민 공개

청렴한 안산, 행복한 시민

[첨부3] 제27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_인공지능cctv부분 발제

(제271회-문화복지 제3차) 1

| | |
|---|---|
| <p>제271회 안산시의회(임시회)</p> <p>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p> <p>안산시의회사무국</p> | |
| <p>일 시 2021년 8월 2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p> | |
| <p>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p> | |
| <p>심사된안건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편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편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라. 복지국 소관</p> | |
| <p style="text-align: right;">(10시08분 개의)</p> <p>○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p> <hr/> <p>○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이기환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hr/> <p>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p> | <p>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라. 복지국 소관</p> <p style="text-align: right;">(10시09분)</p> <p>○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양 구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대부해양본부 및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양복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코로나19 대책 및 최근 현황으로 인해서 다소 회의가 늦</p> |

그런 마련해 준 예가 있습니까, 현황이?

○**복지국장 박경혜** 그렇요,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것 좀 현황 주십시오.

다른 매입 임대 들어가신 분 말고, 여러 부류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 말고 보호종료 아동 중에서 LH의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그런 주택을 마련한 현황.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연도는 몇 년도,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2020년도 하고 2021년도에 혹시 신청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아동들이 있었는지.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물론 그런 아동들이 어렵기 때문에 25세까지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 연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현황이 있는지 좀 주십시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요? 네, 하십시오.

○**나정숙위원** 여성보육과장님.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인공지능 어린이집 예산이요. 전산개발비,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시범 운영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연구개발비라는 거는 연구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걸을 어린이집에다 배치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그 부분이라서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통계목으로 작성을 했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950만 원은 연구개발만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가 시스템 개발로 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전산 개발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추경은 시스템 개발만 하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시립어린이집 3곳에 시범 운영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이번에 시립센트럴포레어린이집 저희가 10월 개원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착수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플랫폼 구축이 한 6개월 정도 자료 축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 6월 달에 시범 운영을 해서,

○나정숙위원 내년 6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950만 원에 플랫폼을 개발해서 실제로 하는 건 내년 6월이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내년 6월에 시범 운영이 들어갑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6월에 그러면 시범하는 거라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1개소를 내년 6월에 하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다 하시면 되지 왜 추경에 올리셨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가 그 기간이 아이들이 입소를 하면 그 시점부터 바로 적용을 하려고, 왜냐하면 6개월 동안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내년에도,

○나정숙위원 과장님, 바로 시작을 한다라는 게 어린이집에다 설치해서 시범을 한다는 거를 말하는 건,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맞습니다, 어린이집에.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서 하려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자료 구축이, 플랫폼이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이 CCTV

가 장착이 돼서 학대행위가 발생했다, CCTV 관리 주체가 인지됐다. 제가 언론에서 발표한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대행위를 학대 전담 부서가 압니까, 어디가 압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은 업체에서 계속 모니터링이,

○나정숙위원 계속 그거를 모니터링 한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나정숙위원 그럼 업체가 모니터링 하는 그런 운영관리비도 저희가 줘야 되겠네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은 저희가 1년간은 무상으로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요. 현재로는 시스템개발비 그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다른 지자체 어디 어디 시범 운영하는지 조사해서 자료 주시고요, 다른 지자체.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가 지난번에,

○나정숙위원 자료 왔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나정숙위원 그건 저희가 보면 될 거 같고.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로 학대 행위 발생에 대한 방지를 막을 수 있다라는 그게 확실한 보장이 어디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고, 검증이 되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린이들도 좋고 어린이집도 좋고 부모님들도 좋고 이래야 되는 거죠,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에 벌써 발표를 이렇게 딱 하셨어요. 언론에 ‘안산시 인공지능 CCTV 도입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7월 5일 날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아까 말한 어린이집, 원장님, 어린이, 학부모들이 과연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가, 저는 아직 공감 상태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처음에 많은 부분들이 염려가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공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심보육이죠. 확대 예방도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 저희보다 먼저 시범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그럼 저는 자료로, 그럼 저희가 3곳의 시범 운영을 다 내년에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서를 저희한테 자료를 주세요.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방침은 받았는데요. 저희가 시범을 해 보고 데이터,

○나정숙위원 시범 이후에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아까 말한 시스템 관리 모니터링 그곳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확대하고, 이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위원님, 그런데 시범 운영을 2년 정도 할 예정인데 시범 운영을 해 봐야 그런 내용이 좀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아직 그런 확대에 대한 그건 없고 시범적으로 3곳만 한다?

○복지국장 박경혜 네.

○나정숙위원 한 곳이에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가 처음에 한 군데 시범으로 하고요,

○나정숙위원 한 군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추가로 또,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언론에는 3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우선은 올해,

○나정숙위원 7월에 신문에 나온 거는 3개 시범 운영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2년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장님, 2년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나정숙위원 그럼 사실 이 2년 동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2년 하기 전에 아까 말한 공감대, 문제점,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했고 어떤 의견이 있는지 이런 게 좀 돼야 되잖아요.

됐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그 부분,

○나정숙위원 저는 안 됐다고 봅니다.

왜, 지금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반대한다라는 그런 공문도 왔고 또 부모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게 다 부분하고, 인공지능 CCTV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몰라요.

○복지국장 박경혜 위원님, 과거에 CCTV도 도입할 때 사실은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CCTV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든지 처음에 도입할 때는 그런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우려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일단 신중하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부모나 맘카페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원님들 의결하시기 전에 자료가 취합이 되면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 더 자료를 하고 마칠게요.

아동권리과 오늘 우리 아동급식에 대한 질문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 업체들이 있잖아요. 업체들한테 언제 G-드립카드로 할 것인지 통보했는지 그 공문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업체들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그분들이 설비 같은 것도 했을 거고 또 G-드립카드 이후에 그럼 그 업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대책이나 보상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실 예전에 저희가 이런 카드로 했잖아요, 급식용요.

아동급식을 한 적 있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있었어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현장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도시

탁으로 바꾼 거예요.

○나정숙위원 네, 그런 건데요. 이렇게 카드로 바꿨을 때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성남에는 직영으로 아동급식을 직접 한다고 합니다. 성남의 사례를 한 번 찾아보시고 직영으로 했을 때, 저희 안산 전체 급식 아이들 지원하는 게 3천 명 맞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그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직영으로 했을 때의 방안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요.

G-드림카드에 대한 우리가 준비 그게 사실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6개월 안 남았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나정숙위원 그 내용에 대한 대책 강구 자료로 주세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AI 관련해서 자료를 주신 걸 봤는데 몇 가지 궁금한 걸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장님도 CCTV 건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처음에 논란의 소지가 같이 있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리가 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거부' '반대' 이 표현을 쓰시긴 했는데 CCTV를

장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거부가 어린이집 원장이나 그쪽에서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거부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들이나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첨부한 걸로 아는데, 맞죠?

○복지국장 박경혜 저는 유치원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어린이집 일단 CCTV 설치 안 한 데에 대해서.

○복지국장 박경혜 유치원은 아직 CCTV를 설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CCTV 설치를 어린이집 하는 거에 대해서 방침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설치를, 그렇죠?

방침,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운영을 하는 분들의 그런 기준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이거랑 그거랑 다른 형태예요.

CCTV 부분은 정부라든가 제도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방침이 준수가 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일방적으로 그쪽의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사가 아니라 거기 구성원들이 될 수 있는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서도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가장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개량 다르다는 걸 좀 강조를 해드리고요.

또 한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가 생각하는 데가,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시립인 거고 더구나 개원을 앞두고 있는 데에 설치를 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현재 지금 일단은 첫 번째 시립이라는 점인 거고요.

일반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시립이라는 걸 고르신 거 같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아니라 운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설치하신다는 거 자체가, 그렇다면 그 이후에 설치해 놓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물어보실 겁니까? 확인하실 겁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새로 하는 시립포레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학부모님에게,

○김태희위원 거기 예정 학부모들은 다 지금 돼 있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그 분들한테도,

○김태희위원 그분들이 반대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은 저희가,

○김태희위원 그거 같이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학부모,

○김태희위원 전체 다 동의해야 됩니까, 아니면 몇 퍼센트가 동의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규정을 누가 만듭니까?

CCTV 같은 거는 사회적 합의가 된 그런 방침과 기준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시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참여해 주세요라고 홍보만 하실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아니요, 저희가 첫 번째 어린이집 학부모님과 또 교사 분,

○김태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국장님 말씀은 인터넷 카페라든가 어머님들 모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의 의사도 일반 부모의 입장, 시민의 입장도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는 곳은 그분들이 아니잖아요. 가장 첫 번째에 대한 설문과 의사를 물어야 했더라면 그거예요.

그게 가장 일순위인 거고, 지금 보면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하는데 제출은

하세요.

다만 접근 방식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은 생체정보예요, 일반정보가 아니라 생체정보.

그렇기 때문에, 제출하신 자료를 봤습니다. 타 지자체의 현황을 보면, 여기에 보면 얼굴인식기능 사용, 영유아 개인별 팔찌 사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영유아는 팔찌를 사용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은 저희가 벤치마킹한 수원시의 경우는 생체정보를 이용한 팔찌를 착용한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팔찌는 착용하지 않고 안면인식을 통해서 표정이나 그런 부분으로 현재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의 방식이 있다면 저희에 해당되는 업체에 이런 말씀을 다 들으신 거네요, 생각하는 업체가?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예, 저희하고도,

○김태희위원 맞네요? 그 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성남에 위치한 주식회사 소이넷입니다.

○김태희위원 어디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주식회사 소이넷.

○김태희위원 소이넷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그 업체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요청한 거는 업체와 관련해서 어떤 업체인지 그런 현황들이나, 이게 시범사업을 아까 2년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가 어느 정도의 시범사업을 해서 이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자료를 제출하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자료 제출에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기창조연구소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확대됐고요.

○김태희위원 저기요,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10월인가 11월 개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 CCTV를 설치하고 나서 설문을 하시려고 저는 그거는 순리에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일단은 개원을 하고 난다면, 막상 이 예산이 통과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다 운영이 되고 이분들이, 아이들, 이용하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을 하든 그러고 나서 예산이 돼서 사업을 하시든 일의 순서가 있는 거 같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얼굴인식 등 이런 생체정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위반이예요.

저는 CCTV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저희가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체가 검증이 돼서, 여기 노인복지과도 있지만 노인복지 관련해서 AI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나 경기도가 권장을 한다 그래서 일부 일정 부분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그런 시범사업은 공인으로 인정이 돼 있잖아요.

이 업체는 뭐니까?

그리고 안산시 계속 전국 최초라고만 하시는데 이게 1차적으로는 어린이집연합회, 일단 시에서 발표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부작용이나 우려되는 부분을 한쪽 측면에서 한 주체는, 어린이집이나 보육 쪽의 한 주체는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또 학부모 입장이나 학부모, 시민 입장도 분명히 나눠져야 될 게 이용자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들의 생체 정보 한다는 이게 가장 1순위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쪽에 일하는 교원들이나 그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제대로 만장일치가 안 된다면 저는 이 사업은 불필요한 거고, 이게 매일매일 그 업체가 계속 모니터링 한다는 거 자체도 상식적으로 저희가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상식에 맞는 사업은 아닌 거 같아요.

좀 더 오히려 이게 더 보편화가 된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용자분들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학부모 설명회 그리고 교사 설명회, 이용자 설명회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안 돼도 될 거 같다는 의견인 거 같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은 동시에 저희가 같이 해 주시면,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 시 AI 기반의 안심보육 어린이집 도입 필요성이라고 해서 연도별 어린이나 아동학대 현황을 주셨습니다. 2018년도에 결정된 거 2건, 2019년 결정된 거 8건, 2020년 신고 건으로 9건, 2021년 상반기 신고 건 10건을 주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2018년, 2019년 아동학대 결정건수로 신고건수는 더 많음.' 이 신고 건수 현황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내 이런 부분들 근절의 그 효과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수원의 한 어린이집인데 이것도 여기는 시립일 거 같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거기는 민간입니다.

○**김태희위원** 민간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여기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오히려 나타나면 더 문제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좀 모순일 수 있는 자료가 나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또 우려도 있고요.

이상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제가 한 말씀 조금 드려보면요,

○**위원장 이기환** 됐어요, 그만하세요. 알겠어요, 그만.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하시고, 이경애 위원님 뭐 하실 거예요?

○**이경애위원** 저도 그만할까요?

○**위원장 이기환** 똑같은 이야기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얘기 말씀하시고, AI 그거는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이경애위원** 저는 충분하지 않았는데.

○**위원장 이기환** 예?

○**이경애위원** 충분하지 않았는데.

○**위원장 이기환**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세요.

○**이경애위원** 이 950만 원을 업체에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업체에 관리

비로 주시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여기에 지금 연구개발 비라고 올리면, 이게 록에 안 맞아요. 연구개발은 업체에서 한 다음에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 거지 개발비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6개월 동안의 아이들의 안전인식,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축적하는 비용 관리비잖아요, 말하자면. 그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관리비지 연구개발비는 아닌 거 같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확인을 해서 상정한 거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렇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과장님 착수금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맞지 않아요. 이거를 시도하는데 사업에 대한 착수금을 우리가 왜 줘니까, 이거 시범사업인데. 그렇잖아요. 그것도 좀 그렇고요.

일단 과장님, 그거잖아요. 센트럴포레가 개원을 하면 6개월 동안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다 축적해서 관리를 어디서 하나면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우리 지금 CCTV에 대한 정보는 누가 관리하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CCTV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어린이집에서
위탁 받은 원장이 총 책임자이기 때
문에 원장이 관리하고 보고 학부모
가 보여 달라고 그러면 거기 동의서
다 쓰고 그다음에 교사들의 동의를
받아서, 다른 아이들의 동의를 받아
서 CCTV 열람을 하죠. 무조건 보여
달라고 다 보여주지 않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예, 맞습니
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원장도 CCTV
를 맨날 그것 보고 있지 못하게 합
니다. 그죠? 그래서 가려놓고 있죠.
어떤 곳은 열쇠로 잠가놓기도 해요.
문제가 생기지 않은 이상은 그걸 보
지 못하게 합니다. 왜, 원장도 교사
나 아이들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라
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CCTV를
마음대로 있어도 열람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가 다치고 왔어
요.' 하는데 'CCTV 보고 싶어요.' 안
보여줍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과정이 있어
요, 꼭.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다 밟고 사인하고 동의 얻
고 한 다음에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에
대해서 어느 시간에 다쳤는지 그거
를 열람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쉽게 노출이 되는 게 아니
예요, CCTV가.

그거는 왜 그러겠습니까. 교사의
인권, 아이들의 인권 그런 것들이 잘
못 전달이 될까봐, 악용이 될까봐 그
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AI 같은 경우는 안면 인식
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그림에서 보셨을 거예요. 똑
같은 웃는 거와 이렇게 그림 그려놓
고 거꾸로 보면 우는 거, 이렇게 보
면 웃는 거로 보이는 그림 보셨을
거예요.

소리 없이 재생되는 그런 안면인
식이나 표정은요, 웃는 건지 우는 건
지 판단할 수 없어요, 과장님.

아이들 안 가르쳐 보셨죠?

아니, 그런 걸 가지고, 안면인식을
가지고 아동학대를 예방한다는 거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다는 걸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정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항상 언론에 먼저 터트려버
리는 거예요. 터트리고 그다음에 사
후 수습을 해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의논
하고 논의해서 시간이 걸려도 이거
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 안 좋겠다라
고 결정해서 하면 부작용이 없어요.

아까 학부모 무슨 단체를 거기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주체인가요? 아니예요. 입학한 다
음에 CCTV를 설치할 것인지 AI를
설치할 것인지 학부모한테 동의를
얻고 충분히 설명하고 그다음에 운

영자인 원장과 교사들한테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천천히 가서 시범사업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언론에다 터트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 안 하면 무슨 일이 크게 벌어지는 것처럼.

어린이집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AI 도입 안하면 전쟁 납니까? 거기 아이들한테 큰 무슨 피해가 있어요?

왜 정책을 그렇게 하시죠?

정말 위험한 정책입니다.

언론에다 뽕뽕 터트려놓고, 실적 홍보용으로만 지금 사용하고 있던 말입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네?

난 그 분들, 그것 만드신 분들 어린이집에서 1회 교사라도 한 번 해보시고 이 정책 하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일주일만 워분 계신 분들 그다음에 AI 업체 일주일만 1회 교사를 어린이집에서 한 번 해 보세요. 해보시고 나서 과연 이 AI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런 걸 한 번 보고서 써 가지고 한 번 도입하시자고요.

이렇게 무조건 강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7월 30일 날 의회에도 공문 보냈고, 파에도 보냈습니다. 그죠?

그런데 파에서 우리한테 8월 12일 날 간담회 할 때 “이렇게 반대 의견 나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공문 온 거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것 왜 그런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국공립 분과장 제가 통화했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저 반대하는 입장 표했습니다.

현장에서 CCTV만으로도 충분히 스트레스 받고 그럼에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AI까지는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죠,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런 부분도 저희가 수원 같은 경우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잖아요. 거기에도 일단은 교사 분들이 처음부터 다 찬성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업 후에,

○이경애위원 수원 얘기하시지 말고요. 제가 조사한 거는 금천구에서 작년엔 이 AI 도입하려고 했어요, 구립에. 금천구청, 구청 구에서. 그런데 못했어요. 왜, 현장에서 못하게 된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고 구청장님과 그다음에 담당 공직자가 그것 이해했어요. ‘아, 이런 나쁜 점이 있구나.’

집행부만 조사한 거 아니에요. 저도 조사했어요. 그런데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기상조고요, 지금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업체한테 왜 우리 아이들의 정보를 관리하게 만들니까?

아니, CCTV를 원장이 책임지고

관리를 합니다, 정보를. 그런데 지금 이 AI는 어디로 가요, 정보가. 관리 시스템 회사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우리 아이들의 정보와 학부모들의 정보와 교사의 정보를 넘겨줍니까?

그런 위험한 발상을 왜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은 처음 6개월 동안 플랫폼 구축을 할 때,

○이경애위원 플랫폼 구축을 하는데 왜 업체에다 그걸 넘겨 주냐고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 자료가 축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축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경애위원 그 자료 축적하는 것을 왜 업체에서 하냐고요. 그러면 시스템을 원장이 관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어떠한 징후가 있을 때 원장님한테 갑니다.

○이경애위원 언제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6개월 동안 축적을 통해서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원장님한테 메시지가 가서 원장님이 볼 수 있도록,

○이경애위원 그거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얘기고요. 평소 AI에 대한 안전인식 정보는 전부 그 회사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할 말은 참 밤새워도 해도 할 말이 많은데요, 과장님.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표 정해놓고 거기를 향해서 가려고 어저지로 지금 무슨 맘카페 동원시키고, 어디 동원시키고 동원시켜 가지고 자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정책. 왜 그렇게 하십니까?

보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지금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 안 듣고 하실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위원님,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사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원장님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학부모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시범으로 하고자 하는 곳에 설명을,

○이경애위원 개원한 다음에 그 당사자인 학부모들 의견을 들으세요, 맘카페 동원하지 마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리고,

○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이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 시범사업을 정말 하신다면, 저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구조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시립어린이집 한다면 시의 방침이나 이런 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원장이나 거기 교직원 분들이나 실

질적으로 공직자 분들 만나실 때는 말씀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시범사업이라는 부분을 시립에서 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런 수준에서 안 맞다는 거예요.

막상 진짜 이 사업이 그렇게 효과가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원한다고, 학부모 원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시범사업은 민간 어린이집 쪽에서 '이런 사업 지원할 테니까 한 번 신청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가 진정 동의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시범사업 그렇게 하세요.

개원도 안 한 곳에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방식이, 발상이 저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지금 민간에서도,

○**김태희위원** 더 이상 그만하겠습니까.

진짜 하신다면 민간에서,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그런 걸 오히려 민간 쪽에 설명 더 하시고 지원을 하겠다, 공모 신청 하셔라 라고 하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범사업이고 아동학대 예방에 있어서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아까 말씀에 어르신들 프로그램 예산 반납한다고 그러셨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호 인성교육이라고 그것만 반납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것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이기환** 아시겠지만 코로나는 가장 어르신부터 먼저 다 접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4단계이지만 1시부터 5시까지 개방하고 있고,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은 10년, 모르겠어요. 내일모레를 기약할 순 없겠지만 길게는 10년, 20년 이렇게 바라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희망이 뭐겠습니까. 여가선용이잖아요.

코로나 종식, 지금처럼 더불어 산다고 하면,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늘 얘기하는데,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이렇게 예방접종도 했고 하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라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도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뀌어야 돼요.

시립어린이집에서 운영비가 안 된다, 교사 인건비 당연히 지급하고 운영이 안 된다 하면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줘야 되고.

저는 운영이 여러 가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씩 변수를 써서 특별활동을 해서 원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 등등을 파에서는 아시고 정말 진정된 대한민국의 보육, 유치원 교육이 무상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게끔 해 주시란 말이에요.

제 얘기를 좀 새겨들으시고, 그런 것들 현장도 조사해 보시고 좀 바로 잡아주세요. 그래야만 이게 교육도 바로 서고 그럴 것 같습니다.

뭐 하나 갖고 트집 잡으면 한이 없겠습니까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무상보육이라 해 놓고, 지금 왜 아이들 안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 보이지 않는 돈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예방접종도 간단히 한 번 얘기하면, 보건소 업무였지만 보육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아셔야 돼.

예방접종 몇 가지 태어나면 하지 않습니다. 선택적 예방접종이 있어요. 그러면 있는 아이들은 사각으로 된 거 있더라고요. 그거는 선택적으로 맞춰요.

그리고 의사선생님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아이한테 뭐가 효과적이

고 예방접종, 어느 학부모가 자기 자녀한테 안 맞출 학부모 어디 있어요.

돈이 덜 들어가게 키울 수 있는, 자녀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만들어져야만 출산정책도 늘어납니다.

출산장려금 100만 원, 300만 원, 천만 원 좋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게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단 얘기에요.

그럼 여성보육과에서도 그런 걸 좀 아시고 하나씩 하나씩 한꺼번에 되지 않겠지만 정부에 신청해서 개선할 건 하시고, 도에다 할 건 하고, 아니면 국회에다가 입법을 해서 고쳐야 될 거 고치고.

그런 걸 해서 정말 출산정책이나 자녀 교육에 문제점이 없도록 저는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특활활동에 대해서 제가 불만 있게 얘기를 해서 담당 어린이집연합회나 유치원연합회에서 들으면 저한테 욕을 하겠죠.

하겠지만 그런 걸 아셔야 돼. 당장 바로잡을 수 없지만 무상보육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파에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 되셨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